

일본은행 단칸 결과, 제조대기업 업황지수 2분기만에 소폭 개선

1. 단기전망 주요 결과

□ 2024.6월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*(이하 '단칸') 결과, 대표지표인 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(DI; 좋음-나쁨)는 전분기대비 2%p 상승**한 13%p로 2분기만에 상승 전환(23.12월 13%p → 24.3월 11%p → 6월 13%p)

* 대상기업: 9,076사, 회수율: 99.2%, 조사기간: 5.29~6.28일

** 섬유(24.3월 11%p → 6월 22%p), 화학(2%p → 10%p), 일반기계(23%p → 27%p) 등 전체 16개 업종 중 9개 업종은 상승하였으며, 철강(16%p → 0%p), 생산기계(17%p → 11%p), 조선·중기(18%p → 14%p) 등 5개 업종은 하락

○ 비제조대기업 업황 판단지수는 1%p 하락*한 33%p로 높은 수준 지속 (20.6월 이후 처음으로 악화, 32%p → 34%p → 33%p)

* 운수(24.3월 24%p → 6월 29%p), 전기·가스(16%p → 20%p), 통신(29%p → 40%p) 등 전체 12개 업종 중 5개 업종에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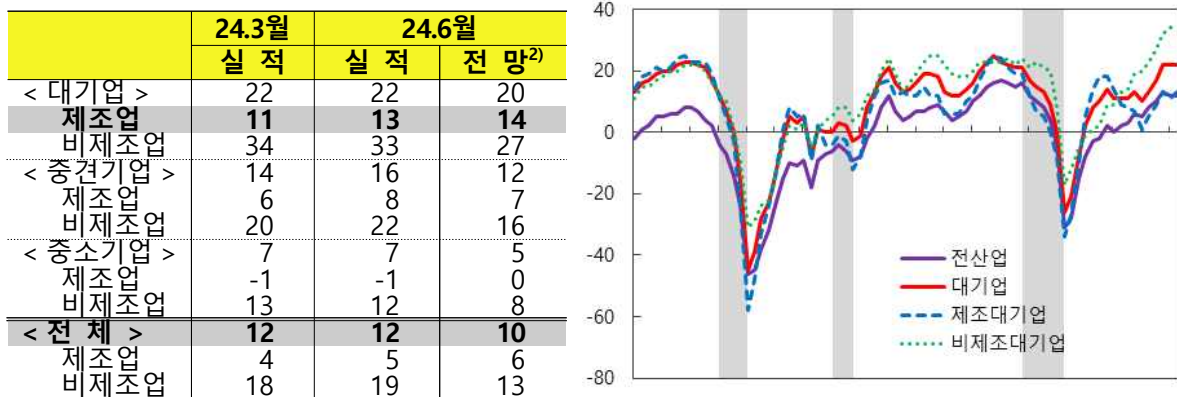
○ 소규모·소산업 업황 판단지수*는 전분기와 동일(13%p → 12%p → 12%p)

* 제조업(24.3월 4%p → 6월 5%p), 비제조업(18%p → 19%p)

□ 3개월후 제조대기업 업황 전망지수는 14%p로 현재(13%p)보다 상승

○ 소규모·소산업 전망지수는 10%p로 현재(12%p)보다 하락

업황 판단지수¹⁾(%p)



주: 1) 좋음 응답비율-나쁨 응답비율 2) 3개월 후 전망치 3) 음영은 경기후퇴기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

- **고용인원 판단지수**(과잉-부족, 전산업 24.3월 -36%p → 6월 -35%p)는 상승한 반면 3개월후 전망치(-40%p)는 현재보다 하락
 - 생산·영업설비 판단지수(과잉-부족, 전산업 -1%p → -1%p)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3개월후 전망치(-4%p)는 현재보다 하락
- **2024년도 설비투자계획액 증가율**(토지 제외, 소프트웨어·연구개발 포함 전년비)은 10.6%로 2023년도(9.4%) 대비 증가
 - 대기업(8.4% → 11.9%)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(10.6% → 10.1%) 및 중소기업(13.4% → 5.0%)은 감소
- **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**(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상승률)은 1년후(24.3월 2.4% → 6월 2.4%)는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3년후(2.2% → 2.3%) 및 5년후(2.1% → 2.2%)는 상승
 - 판매가격 전망(현재수준대비 상승률)은 1년후(2.7% → 2.8%) 및 3년후(4.0% → 4.1%), 5년후(4.7% → 4.8%)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

고용인원 및 생산설비 판단지수¹⁾(%p)



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



주: 1) 과잉 응답비율-부족 응답비율 2) 음영은 경기후퇴기

2. 시장 반응

- 주요 언론 및 시장참가자들은 자동차 조업중단의 여파가 완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(일본경제신문, 다이이치생명 등)
 - 제조업은 시장예상을 상회하였으며, 비제조업은 예상과 부합*
 - * 제조업 실측치 13%p vs 예상치 11%p, 비제조업 33%p vs 33%p, 대기업 기준, Bloomberg
 - 세부업종에서는 소매(24.3월 31%p → 6월 19%p), 숙박·음식(52%p → 49%p), 개인서비스(33%p → 29%p) 등의 업황이 악화되었는데, 고물가에 따른 소비부진,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
 - 한편 조사기업의 2024년도 상정 환율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전분기 141.42엔에서 금분기 144.77엔으로 상승